

이제는 세계무대로

중국의 WTO가입으로 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포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게 될 것이고 LG전자 오리온전자 등 구미공단의 전자산업과 경주 아폴로산업 경신공업 등 동강공단에 자동차부품 산업 역시 국내외에서 그 위력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새천년을 맞아 경북경제의 심장부인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 도내 주요 공단의 현주소와 향후 경제전망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구미

국내 최대 전자산업 대카인 구미공단은 99년의 약진에 힘입어 새천년에도 그 여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구미공단은 휴대폰 모니터 브라운관 등 전자제품의 확장에 힘입어

2000년도에 약 150억불의 수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엔화강세로 인한 전자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개선과 해외경기 호조, 대만지진 여파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구미공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미공단 전체수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구미공단 2000년 수출목표 150억불 컴퓨터용 모니터·브라운관 등 주도

브라운관 등이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공단은 IMF로 내수위축과 수출부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수부문의 구매력 증가와 전자제품의 수출 급증으로 99년 수출목표 120억불을 16.7%나 초과 달성하는 약 140억불의 실적을 올리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 99년 생산목표인 20조2천억원의 16.8%나 초과해 약 23조6천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린 구미공단은 2000년도 약 25조원의 생산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

는 구미공단 전자부문에 비해 섬유부문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 제품가격 하락, 경공업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돼 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에 신규 투자로 이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미공단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규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내년도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자업종의 수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이승호기자]

철강업 중심 경기회복세 지속

각종 지표상으로 외환위기가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경기의 호전기미에 따라 철강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회복세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의 내수와 수출증가에 따라 포철을 비롯한 철강공단의 가동률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업과 음식료, 서비스 등 기타업종도 내수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건설관련 제조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의 철강수입규제와 국내 건설경



이무형
(포항상의회장)

기의 침체, 설비투자부진 등은 지역경제의 약화로 작용하고 있으며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수출재선상 약화, 물가상승 등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다방면에 걸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수출장벽을 비롯한 대외여건을 이겨 내고 저비용 고효율의 내수 제고를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역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대 진출 기업 크게 늘듯

이제 대망의 200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97년 IMF체제이후 너무나 어렵고 처절했던 경제관화를 겪어온 탓에 새천년에 거는 기대가 어느해보다도 크다.

이러한 기대는 되살아난 내수시장과 함께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업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기업체의 남기일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제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황을 맞은 경주지역의 300여 자동차부품 제



손영태
(경주상의회장)

조업체는 이러한 호경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시장의 다변화로 국내에서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글로벌시대에서 지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얼마나 확충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체는 ISO 인증을 비롯해 100PPM을 달성하고 단단위 PPM에 도전하는 등 세계 일류기술, 일류제품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자업종 호조 힘입어 성장 가속도

국내 최대 전자단지 메카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구미공단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새천년에도 그 성장속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불기시작한 전자업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99년 한해 140억불 수출실적을 올린 구미공단의 2000년도 수출목표는 1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구미공단은 반도체 TFT-LCD, 모니터, 브라운관, 휴대폰 등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구미 4공 430여개사로 종업원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김중수
(산업공단 본부장)

단 활성화와 더불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미공단의 섬유부문 회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제품판매가격 하락, 경공업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조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4단지의 공사착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구미공단에는 현재 496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가동중인 업체는 430여개사로 종업원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중앙고속도로 개통... 경제발전 기반

안동지역은 산업구조적으로 제조업 등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IMF로 인해 가족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동지역 경제는 실로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풍산국가공단조형사업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다행히 금년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안



이진우
(안동상의회장)

동 하회마을 방문을 계기로 유교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설립으로 안동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갖게 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안동지역이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안동발전은 도청이전에 달렸다.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돼야 한다.

영국여왕 방문계기 관광특수 특목 유교문화권 개발 가시화... 경제활력

안동

영국여왕의 하회마을 방문으로 유교문화를 앞세운 관광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새천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 활황이 예상되며 수입산 농축산물이 활개를 치는 농축산물은 여전히 고전

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지역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중심이자 성리학의 중흥지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유통단지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대표적 인 도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안동시는 인근 농촌의 농작물생산과 유통에 의존하고 있으나 편점사로 인한 농경지

의 축소와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해마다 농산물 생산이 감소돼 열악한 시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대구-안동의 상권협력이 가속화되면서 가파른 위축된 지역경제에 불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관광특수를 특목화하려는 반면에 농산물 수출업으로 농민들이 울상을 짓게되는 등 회복이 교차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권영덕기자]

지난해 11월 7일자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뛰어난 특수를 특목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김대중대통령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을 계기로 유교문화권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제4차국도개발계획(안), 경북북부 유교문화지역활용, 관광개발계획 등 다양한 개발방향과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설립이 본격화 되면서 침체된 안동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때따라 안동시는 관광특수를 특목화하려는 반면에 농산물 수출업으로 농민들이 울상을 짓게되는 등 회복이 교차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권영덕기자]

초곡 주거지 예정지역 답510평 평당25만원

롯데백화점 옆 학산상가 오피스 빌딩 대160평 건평 160평 대로면 매7억원

전원주택 및 창고형 복층 포장도로접 취락지역 850평 평당25만원

흥해초곡 전원주택 지 840평 평당12만원

전원주택 흥해초곡 남향380평 일부대지1/2도가능 평당17만원

흥해이인리 산 평당16만 평당20만 평당22만원 많이 있음

전원주택지 최 적정 하소동 전870평 포장도로접 평당8만원

공장및창고 1160평 흥해장 준보존임지 도로완비 평당 20만원

흥해이인리 루지 도시순환도로 예정지점 준보존임지 2600평 4000평 평당 8만5천

용흥동 주택 우회도 로열 8Mx4M 각지 대지 45평 건32평 2층 주거권리 매 9천만

영재부동산 246-7977 (허가4203-0060)

자연녹지 곡강 10m 계획도로 접 산4000평 당3만원 투자적합

병원부지 청림 강변도로 접 430평 당80

자연녹지 용흥동 우회도로 접 산1,000평당 15만원

위덕대 우회도로 국도접 당35만원

자연녹지 칠포 구도 2000평 당22만원

장성구획 정리지구 10m 6m 각지 상업지역 옆 250평 당 95만원

나대지 항구동 우방 30m 8m각지 150평 당300

나대지 북부해수욕장 인근 97평 30m접 당270만원

임야 준농림 준보전 신광 국도접 3500평 당9만원

임야 달천 개발지역 도로접 5000평 투자적격, 당6만원

준농림 신광원향 1000평 당10만원

나대지 죽도파출소앞 40m8m각지 120평 당900

식당부지 검진원 주택기 계국도접1600평 준농림 당8만원

나대지 상업지역 병원부지 적합 두호동 국민은행옆 25m8m 각지 268평 당350

준농림 신광, 죽정 2600평 투자적합 당4만5천

식당부지 준농림 접 650평 당20만원

자명리 당 800평 당 12만원

야전임야 달천 산 17000평 도로접 당3만원

자연녹지 양덕 접 당 1000평 당25만원

준농림 이가리 도로 접 1200평 당 17만원

예전부동산 246-8949, 248-1700 (허가4203-143)

삼성생명 위실내 포장 30평, 전 4000·월70·비품 2500

대흥동 점포 30평, 전 200·월 30평, 전 200·월 30평, 전 200·월 30평

상원동 카페 60평, 전세 4000·월 110

상원동 경복서점 옆, 25평 전세 4000·월 260·비품 4000

삼성생명 보세골목, 점포 12평·전세 6000·월 150·권 3000

중앙상가 점포 12평·전세5500·월 160·비품 4000

대흥동 상권 최요지, 점포 10평·전세 2500·월 230·비품 4000

대련 가든식당, 대형 주차장, 안벽 전·월 300·권리부

중앙상가 2층, 130평·전세 2억·월 300·권리부

중앙상가 5층 대매 11억·대 38평 매 2억 사대중심가

육거리 인디안 매장 앞, 점포 10평·전세 6000·월 70·비품 약간

육거리 세라론 호텔 앞, 점포 18평·전세 2억·조정가능

88분식 골목 2층, 노매·전세 1억·월 200·비품 6000

청진2리 잡종지, 약 600평·전세 60평, 평당 63만 원대지, 상가건물, 아파트, 임야, 필요한 물건 다양 보유

흥해읍 정곡동, IC부근, 5500평·잡종

청하 고현 공장 부지, 3만평·평당 5만원

죽도 성당 옆, 대지 500평·매매

양학동 보성 아파트 옆, 대지 93평·평당 200만원

중앙상가 5층 대매 11억·대 38평 매 2억 사대중심가

건국부동산 251-4289 (허가4203-139)

안강읍 산대리 일반주거지 지역 안강우방아파트 입구 6m8m각지 대지118평 1억

동해면 약전사거리에서 구룡포 방향 300M위치 신실 포항도로 접한 전·담1060평 당17만원

대보면 감사리 해상도로 접 900평 당6만5천 원

학산동 우방비취아파트 뒤 우방 청운타운 앞 15m8m각지 일반주거지역 대지120평 평당 350만원

상도동 한국노총 옆 각지 대지137평 평당 350만

대보면 호미곶 전 원주리 자연경관 최상 지역 준도시 취락 지구전 574평 당 15만원

흥해 양대지 315평 포항 준보전임지 2100평 평당9만

흥해 한동대학앞 준농림지 1100평 당10만

흥해 초곡리 임야 2,160평 평당8만원

흥해 한동대학앞 당394평 평당8만원

장성동 포항자동차학원 옆 당866평 평당20만

오천 광림리 준보전 임지 2500평 임야 당2만5천

구룡포 구룡포리 토지구획 예정

지구 일반주거지역 1100평 12m8m도로접 3년생 벚꽃 2천그루 당 17만 (급매)

죽도동 상도읍 지역 대지 210평 건평 390평

대도동 상가주택 건축 중 상가주택 건축 면수4년 대지58평, 건평67평 월세33만 전세1,500만원 월세60만원 매도가 2억3천만원

신광면 3,000평, 1,000평 분할매매가능 은천지구 포장도로 면당70,000원

오천읍 월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당375평 평당22만원

오천읍 문덕 구획정역 지역 16m도로 대지95평 평당120만원

장사면 공장 부지 3500평, 민평, 만오천평 전화문의 급매

우현동 화성아파트 뒤 8m도로 접한 나대지 260평 평당 80만

경북중개사 244-0884

입지조사에서 분당까지 매물단지 "땅"을 최대효율 가치를 지닌 "황금"으로 바꾸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개발가치가 충분하다면, 본사가 부분 투자 하는 공동개발방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개발 정보제공 전원주택지, 공동주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테마타운 등 개발에 필요한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최소투자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허가 종합컨설팅 업체 형질변경, 농지전용, 각종 점용허가 등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상담부터 사업경의 성공을 위한 컨설팅까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귀하의 개인참모가 되었습니다. 한번의 상담이 평생의 기회가 됩니다.

부동산투자 시대가 다시 온다 금융, 증권에 이어 새 천년에는 부동산 투자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밀마닥시세인 지금이 바로 투자기회입니다. 자기 땅을 투자개발할 뿐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할뿐, 모두를 위한 최선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금땅을 향한 첫걸음 한번의 상담이 평생의 기회가 됩니다.

금강토지개발주식회사 대표 Tel. 252-7777

전원주택 동호인 모집중 (최고의 위치, 대지 평당 10만~40만원대 다양하게 확보)